

## 2014 브라질 대선, 중도좌파로서는 질 수 없는 게임

김재순

브라질에서 10월5일 정·부통령과 27개 주의 주지사, 연방상원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1, 연방하원의원 513명, 각 주의 주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동시에 시행된다. 정·부통령과 주지사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율 1~2위 후보가 10월26일 결선투표에서 승부를 가린다. 결선투표에서는 단 1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승리한다. 유권자는 1억4천180만 명이다. 2010년 선거 때의 1억3천580만 명과 비교하면 4.43% 늘었다.

대선에는 11명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자당(PT)의 지우마 호우세피 대통령과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의 아에시우 네비스 연방상원의원, 브라질사회당(PSB)의 에두아르두 캄푸스 전 페르낭부쿠 주지사 등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예상득표율은 호우세피 37%, 네베스 20%, 캄포스 11%로 나왔다. 호우세피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35%, 보통 38%, 부정 26%로 나왔다. 현재로서는 이변이 없는 한 호우세피 대통령의 무난한 승리가 전망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승부를 결선투표로 미룰 것인지가 관심사다.



왼쪽부터 지우마 호우세피, 아에시우 네비스, 에두아르도 캄푸스 후보들  
(출처: <http://noticias.r7.com/>)

### 주요 정당들은 ‘중도’ 지향, 집권당은 실용주의 강화

브라질 의회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9년 사이 주요 정당들의 성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제히 중도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좌파와 우파 정당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정당 간의 이념적 거리가 그만큼 좁혀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런 흐름의 맨 앞에 노동자당이 섰다. 2003년부터 12년째 집권하고 있는 노동자당은 지난해 11월 당 대회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더욱 강화했다. ‘더 유연한 좌파’ 로의 변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여론의 반응은 노동자당의 집권 연장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브라질은 전형적인 다당제 국가다. 2013년 말 현재 연방선거법원에 등록된 정당은 32개에 달한다. 32개 정당 가운데 절반 정도가 노동자당을 정점으로 하는 연립정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방하원의원은 513명이며 여권 406명, 야권 107명으로 분류된다. 여권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도 의미 있는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현지의 유력 여론조사업체인 다타폴라(Datafolha)가 지난해 말 4천55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유권자들의 성향은 좌파 10%, 중도좌파 31%, 중도 20%, 중도우파 29%, 우파 10%로 답했다.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 셈이다.

### 호우세피, 개혁 아젠다로 정국 주도. 야권 후보들 역전극 기대

호우세피 대통령은 정치 분야를 포함한 개혁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전국의 시위 현장에서 나타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노동자당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다.

브라질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비리를 비난하고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국민운동으로 확산했다. 시위는 시민·사회단체와 학생, 노동계가 주도했으나 가톨릭계가 가세하면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다. 호우세피 대통령은 “국민은 개혁을 원하고 있으며 노동자당의 목표도 개혁”이라면서 정치 개혁을 가장 중요한 대선 공약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브라질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을 안은 호우세피 대통령은 정치권의 최고 실력자인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2003~2010년 집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있다. 룰라 전 대통령은 노동자당의 2014년 최대 과제를 호우세피 대통령 재선에 맞추고 대선 캠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호우세피 대통령은 지지 기반도 탄탄한 편이다. 노동자당은 브라질에서 진성 당원이 가장 많은 정당이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당원은 180만 명을 훨씬 넘는다.

경제성장 둔화와 높은 인플레이션, 월드컵 반대 시위로 호우세피 대통

령의 지지율이 담보 상태를 보이는 틈을 타 야권 주자들은 희망의 불씨를 어렵게 살려가고 있다. 네비스 의원과 캄푸스 전 주지사는 한 자릿수에 머물던 지지율이 오름세를 보이자 30% 가까운 부동층의 선택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야권이 후보 단일화로 승부수를 던지지 않는 한 판세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치·경제 컨설팅 회사인 유라시아 그룹은 호우세피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70%로 예상했다. 유라시아 그룹은 호우세피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계속하더라도 대선 승리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도이체방크도 성장 둔화와 에너지 위기,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Petrobras)의 부실경영에 대한 의회 국정조사 추진, 월드컵 특수 실종 등이 호우세피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으나 대선 패배를 가져올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 정치권은 ‘룰라 효과’에 주목

이번 대선에서 부동층이 변수라면 ‘룰라 효과’는 상수다. 룰라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10년 대선에서 자신이 직접 고른 호우세피 후보의 승리를 이끌었고, 2012년 지방선거 때는 야권의 아성인 상파울루 시에서 노동자당 후보를 시장에 당선시켰다. 호우세피 대통령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교통정리에 나서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올해 대선에 룰라 전 대통령이 출마하면 호우세피 대통령보다 더 쉽게 당선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그의 정치적 비중을 잘 설명해준다.

이번 대선에서 룰라 전 대통령은 상파울루 주 등 주요 지역을 찾아다니며 호우세피 대통령의 재선과 연립정권 참여 정당 소속 주지사 후보



지우마 호우세피 대통령과 룰라 전 대통령  
(출처: <http://eleicoes2014.org/lula-eleicoes-2014.htm>)

들의 당선을 위해 지원 유세를 할 계획이다.

룰라 전 대통령은 TV·라디오 연설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서도 선거 정국에 깊이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에는 정치 개혁과 미디어 규제, 기아 퇴치 등을 주제로 제작한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야권 입장에서 룰라는 상대하기 버거운 강력한 카리스마다. 그래서 야권 후보들은 호우세피 대통령보다 룰라 전 대통령의 행보를 더 주시한다.

### 남미 좌파 대세론 확산? 퇴조?

브라질 대선 결과는 남미 좌파 대세론의 미래와도 직결돼 있다. 남미 좌파는 1990년대 중반부터 강세를 보이다가 2010년을 전후해 세력이 위

축됐다. 그러나 2010년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호우세피가 승리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2011년 6월 페루 대선, 2012년 10월 베네수엘라 대선, 2013년 2월 에콰도르 대선, 2013년 12월 칠레 대선에서 좌파 후보가 잇따라 승리했다.

현재 남미 주요국 가운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칠레 등 8개국에서 좌파가 집권하고 있다. 우파가 집권한 국가는 콜롬비아와 파라과이뿐이다.

파라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을 구성한다. 남미공동시장은 파라과이 인프라 사업에 6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파라과이 국내총생산(GDP)의 30%는 남미공동시장의 다른 회원국들과 경제 관계에서 나온다. 파라과이는 좌파 대세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올해 대선에서 호우세피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남미 좌파 대세론을 더욱 공고하게 다지는 동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 누가 집권해도 경제가 문제

도이체방크는 브라질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했다. 올해 대선에서 누가 승리해도 경제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브라질이 경기 부진 속에 물가가 뛰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브라질 국채에 대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와 내년 브라질의 성장률을 1.8%와 2.2~2.7%로 예상했다. 올해와 내년 인플레이율은 브라질 정부의 억제 목표를 위협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높은 인플레이율과 고금리,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브라질 경제

에 계속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호우세피 대통령과 유력 야권 후보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 문제에서 뚜렷한 처방전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브라질 유권자들은 정치·사회 분야 개혁과 함께 2000년대의 고성장 리듬을 되찾아줄 지도자를 바라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

김재순 - 연합뉴스 브라질 상파울루 특파원